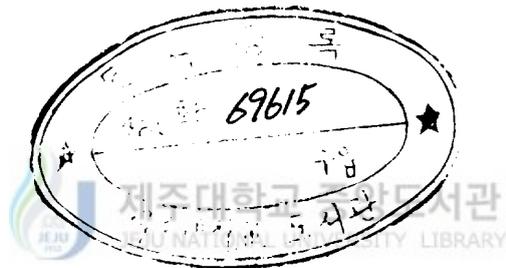


碩士學位請求論文

英語의 強勢配當에 대한 研究

指導教授 金 順 澤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吳 京 錫

1992年 8月

英語의 強勢配當에 대한 研究

指導教授 金 順 澤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2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提出者 吳 京 錫



吳京錫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2年 7月 日

審査委員長 高 泰 洪
審査委員 孔 允 勳
審査委員 金 鍾 勳



〈抄 錄〉

英語의 強勢配當에 대한 研究

吳 京 錫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英語敎育專攻

指導敎授 金 順 澤

본 논문의 목적은 영어의 강세이론이 발전되어 온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음운 이론의 발전과정에서 강세가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밝히는 데 있다. 강세이론에서 강세위치를 결정하고 강세현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것은 그 이론이 일반성과 간결성의 원리에 얼마만큼 부합되는지의 여부이다.

음운론의 발전 과정에는 여러 이론들이 있어왔는데 본 논문에서는 영어의 강세배당에 깊이 관계된 이론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강세에 대한 연구는 전통 및 구조주의 음운론의 입장이 주를 이루었으며, 표준생성음운론에 의한 분석도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전통 및 구조주의에서는 아직 강세를 설명하기 위한 체계적인 규칙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표준생성음운론에서는 체계적인 규칙은 설정했으나 실제로 강세를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표기규약과 규칙등 여러 장치로해서 비일반성과 복잡성을 면치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강세배당을 설명하는 음운 단위에는 크게 표준생성음운론의 분절음과 운율음운론의 음보가 있다. 전자는 일반성과 간결성이 결여돼 있다. 반면 후자는 분절음보다 큰 상위층의 단위인 음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성의 원리에 적합하다. 게다가 수형이나 격자에 의한 강세분석을 함으로써 강세현상을 언어직관에 의해 파악할 수 있어서 보다 우월한 이론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목 차

초 록	
I. 서 론	1
II. 전통음운론에서의 강세	3
1. Jespersen (1909)의 강세 이론	3
1) 평가 강세	3
2) 조합 강세	5
3) 리듬 강세	5
2. Jones (1918)의 강세 이론	6
1) 강세의 본질	6
2) 길이와 리듬	9
3. Gimson (1962)의 강세 이론.....	12
1) 엑센트	12
2) 강세유형의 가변성	15
3) 변별적 어강세 유형	17
4. 강세분석의 특징 및 문제점	20
III. 표준생성음운론에서의 강세 배당	22
1. 음운적 요인에 의한 강세 부과	22
1) 변형순환의 원리	22
2) 강음군과 약음군	25
2. 문법적 요인에 의한 강세 부과	28
3. 강세분석의 특징 및 문제점	31
IV. 운율음운론에서의 강세 배당	34

1. 운율 수형 이론	34
1) 운율 수형	34
2) 강제 음보	37
3) 순환성	43
4) 운율 여분성	49
2. 운율 격자 이론	52
1) LP(1977)와 Prince(1983)의 이론	52
2) Hayes(1983, 1984)의 이론	55
3) Selkirk(1984)의 이론	62
V. 결 론	67
참고문헌	69
Abstract	71



I. 서 론

영어를 말함에 있어서 강세(stress)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들에게 강세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영어는 강세박자어(stress-timed language)라는 말이 이를 잘 설명해 준다.

영어의 강세는 음운론적 요소, 신체구조의 요소, 문화적 요소등이 복합적으로 언어 현상에 반영된 것이다. 강세 및 강세의 배당을 올바르게 습득함에는 이런 요소의 파악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이들 강세배당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서 강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음운론적 관점에서 살펴 보겠다.

음운 이론은 궁극적으로 일반성(generality)과 간결성(simplicity)을 추구해야 함은 당연한 논리이다. 강세 이론에 관한 한, 이 일반성과 간결성의 척도는 강세 위치를 결정하고 강세현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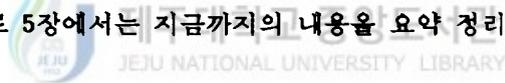
그런데, 지금까지의 강세에 대한 연구는 강세의 분류(classification)와 기술(description)에 의존하는 구조주의 음운론(structural phonology)의 입장이 주를 이루었으며, 표준생성음운론(standard generative phonology)에 입각한 강세 분석도 부분적으로 다루어졌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전통 및 구조주의에서는 아직 강세를 설명하기 위한 체계적인 규칙이 마련돼 있지 않았으며 표준생성음운론에서는 체계적인 규칙은 설정했으나 실제로 강세를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표기규약과 규칙등 여러 장치로 해서 비일반성과 복잡성을 면치 못하였다.

본고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영어의 강세를 어떤 식으로 다루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음운 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강세가 차지하는 역할이 어떠한지를 알아 보는 데 그 의도가 있다.

필자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의 강세 위치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을 연대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이론들간의 상호 관련성을 포착한다. 둘째, 강세 위치를 결정짓는 음운 단위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어떤 면에서 일치하며, 어떤 면에서 상충되고 있는지를 표준생성음운론(standard generative phonology)과 운율음운론(metrical phonology)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셋째, 이를 토대로 해서 운율에 근거한 강세 분석의 타당성을 제시한다.

글을 전개하는 순서는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1900년대 부터 생성 음운론 이전의 전통적인 강세 이론을 설명한다. 특히 운율 자질에 대해서 언급한 Jespersen(1909), Jones(1918), Gimson(1962)의 강세를 살펴 본다. 3장에서는 Chomsky & Halle(1968)로 대표되는 생성음운론(generative phonology)에서의 강세배당원리를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강세배당규칙의 개별적인 고찰은 피하고, 변형순환의 원리(principles of transformational cycle)에 토대를 둔 음운 단위에 대해 기술한다. 4장에서는 Liberman and Prince (1977)에서 시작되어 Selkirk (1984)의 운율 격자이론(metrical grid theory)에 이르기까지의 강세 위치의 결정 요인을 고찰한다. 운율 수형(metrical tree), 강세 음보(stress foot), 운율 격자(metrical grid)의 이론들이 출현하는 배경과 과정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II. 전통음운론에서의 강세

여기서는 과거의 전통적인 음운론에서 영어의 운율자질(prosodic features)의 하나인 강세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Jespersen(1909), Jones(1918), Gimson(1962)의 이론들을 차례대로 살펴 보겠다.

1. Jespersen(1909)의 강세 이론

우선 Jespersen(1909)은 강세의 형태를 넷으로 구분하고 있다. 가장 강한 형태를 4(full stress) 또는 /¹/로 표시하고, 그 다음 강한 강세형을 3과 2(half or mediem stress) 또는 음절 첫머리의 아래쪽에 /₁/로 표시하며, 무강세(unstressed)는 /1/로 나타낸다. 또한 Jespersen(1909)은 강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강세의 성격을 평가 강세(value-stress), 조합 강세(unity-stress), 리듬 강세(rhythmic-stress)로 분류하고 있다.¹⁾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평가 강세

평가 강세는 단어나 구, 절등의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강세를 받고, 덜 중요한 부분은 약하게 발음 되는 강세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구나 문장에서 다음의 품사들이 약하게 발음된다.

(1) 대명사 I, me, you, he, it, etc.

1) Jespersen, O. (1909),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Part I, pp. 150 - 186.

관 사 the, a, an

조동사 be, have, will, shall, can, may, must, do

전치사 in, at, by, etc

접속사 and, or, that, if

이는 마치 기능어(function words)에는 강세를 두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반면에 대부분의 실사(substantives) 형용사, 동사, 그리고 who, both, this, that과 같은 대명사는 말의 목적상 중요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적어도 중간강세(medium stress)를 받는다. 다시 말해 내용어(content words)에는 강세를 받는다.

평가 강세는 어떤 음절에 상대적인 강도의 강세를 두느냐에 의해 결정되는데, 보통 영어 단어에서 중심을 이루는 곳이 어디냐 또는 중심을 이루는 표시가 어느 것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다음이 그 좋은 예에 해당한다.

(2) ¹wishes, ¹baking, ¹bake, ¹daily

복합어 ¹housekeeper, ¹godson, ¹footstep, ¹leapyear, ¹postman, ¹waistcoat,
¹husband, ¹stateman, ¹holiday, ¹bedroom, ¹bedstead, ¹teatime
¹twelvemonth, ¹tombstone

위 단어들은 단어의 앞 부분이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강세가 다 앞에 붙어 있다. 반면에 다음의 단어들은 끝음절이 강세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앞 단어들은 다 전치사와 명사로 결합되는 복합어인데, 전치사보다는 명사에 더 중요한 개념을 전하기 때문이다.

(3) ¹today, ¹ashore(on shore), ¹anew(of new), ¹beside(by side), ¹among,
¹indeed

2) 조합 강세

조합 강세는 각기 다른 두 요소들을 결합시킬 때 붙는 강세를 말한다. 예를 들어 복합 부사와 복합 전치사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첫음절을 분명치 않게 빨리 발음하고 마지막 음절은 강하게 발음한다.

- (4) upon, throughout, fromout, moreover, nevertheless, notwithstanding, henceforward, headforemost, asif, whereas, inside, henceforth, hitherto, almighty
동 사 fulfill, illtreat
장소이름 Torquay, NewYork, Newhaven, Boscastle

조합 강세의 또다른 예는 다음 단어들에서도 찾을 수 있다.

- (5) whoever, whenever, what the dickens, each other, one another, somebodyelse, good morning, good bye, Dr. Johnson, not a bit knife and fork, mother-of-pearl, point-of-view matter of fact

3) 리듬 강세

리듬 강세란 운율 개념에 바탕을 둔 것으로 강한 음절이나 약한 음절을 연속적으로 발음하는 것보다는 강한 음절과 약한 음절을 서로 교차해서 발음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는 점을 반영한 강세의 개념이다. 이에 따라 원래 주어지던 강세는 리듬을 맞추기 위해 다음 음절로 이동(shift)하게 된다.

세(stress)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Jones(1918)는 청자가 귀로 듣고 화자가 말하는 영어의 탁립도는 넷 또는 다섯 가지 정도로 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opportunity"를 등급으로 표시하면 opatjuniti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의 발음은 강세외에 고유한 공명성, 모음과 자음의 길이, 억양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가르치는데서나 배우는데 있어서 다섯 개 등급의 정확한 습득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며, 두 개의 강세 즉 강(stressed or strong) 과 약(unstressed or weak)으로 분류하면 충분하다고 한다.³⁾ 다음에서 강세의 강약 관계를 보자.

- (7) photograph [ˈfɒtəgrɑ:f]
photography [fəˈtɒɡrɑːfi]
photographic [fəʊtəˈɡræfɪk]
photogravure [fəʊtəˈɡrævjuə]

한편, 단어에 따라서는 두개의 강세를 가진 단어들이 있다. 가령, 어떤 단어가 자신의 고유한 의미를 가진 접두사와 결합되어 구성될 때 그 단어는 대개 접두사 자체의 강세와 원 단어의 강세를 다 받는 경우이다. 이들 접두사로는 anti- , arch- (in the sense of chief), dis- (implying separation), ex- (in the sense of 'former'), half- ,joint- ,in- (il- ,im- ,ir-)(in the sense of 'not'), inter- (in the reciprocal sense), over- (in the sense of 'too much'), pre- (meaning 'beforehand'), re- (denoting 'repetition'), sub- (in the sense of subordinate), ultra- , un- , under- (in the sense of 'too little' or in the sense of subordinate)등을 들 수 있다.

3) Ibid. , p. 247.

(8) anticlimax ['æntɪklaɪmæks]	archbishop ['ɑ:tʃbɪʃəp]
disroyal ['dɪslɔ:əl]	disembark ['dɪsɪmbɑ:k]
expresident ['eksprezɪdənt]	half-finished ['hɑ:fɪnɪʃt]
joint-tenant ['dʒɔɪntɪnənt]	insufficient ['ɪn'sʌfɪʃnt]
illogical ['ɪlədʒɪkl]	imperceptible ['ɪm'pɜ:ptəbl]
irreligious ['ɪrɪlɪdʒəs]	intermingle ['ɪntə'mɪŋɡl]
malformation ['mælfɔ:meɪʃn]	misquote ['mɪsqwɔt]
non-payment ['nɒnpeɪmənt]	outgeneral ['aʊtdʒenerəl]
overripe ['oʊvəraɪp]	prepaid ['pri:peɪd]
rearrange ['ri:əreɪndʒ]	sub-deen ['sʌbdi:n]
ultra-fashionable ['ʌltrə'fæʃnəbl]	unobjectionable ['ʌnəbdʒekʃnəbl]
under-secretary ['ʌndə'sekretri]	vice-chancellor ['vaɪstʃɑ:nslə]

그러나, 앞에서 본 접두사라도 그 위치가 다를 때나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는 두개의 강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 (9) discourage [dɪskʌrɪdʒ] (courage not being used as a verb)
inordinate [ɪnɔ:dɪnɪt] (the adjective ordinate being rare)
unwieldy [ʌnwi:lɪdɪ] (the word wieldy being very rare, and
in fact unknown to most people)
undoubted [ʌndəʊtɪd] (doubted not being used an attributive
adjective)
underline [ʌndaɪlɪn] (the verb line not being used in the
sense of 'to draw a line')

아울러 Jespersen(1909)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Jones(1918)의 경우도 원래

지냈던 단어상의 강세가 문장에서 수정되는 경우가 있다. 두개의 강세음절중 하나가 바로 이웃하는 강세 음절이면 그 강세 자질을 상실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⁴⁾

(10) fourteen shillings	['fɔ:tin 'ʃɪlɪŋ]
just fourteen	['dʒʌst fɔ:tin]
inlaid wood	['ɪnleɪd 'wʊd]
all inlaid	['ɔ:l 'ɪnleɪd]
an unknown	[an 'ʌnnoʊn 'lænd]
quite unknown	['kwaɪt ʌnnoʊn]

2) 길이와 리듬

Jones(1918)는 어떤 음의 길이(length)나 음량(quantity)이 리듬(rhythm)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⁵⁾ 즉, 같은 장모음일지라도 뒤따라 오는 자음의 유성, 무성에 따라 길이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절의 핵 뒤에 무성음이 오면 유성음이 올 때보다 더 짧다.

(11) seat [si:t]	<	seed [si:d]
staff [stɑ:f]	<	star [stɑ:]
sought [so:t]	<	saw [so:]
use(n) [ju:s]	<	yew [ju:]

4) Jespersen, O.(1909), *op. cit.* p. 167.

이 현상은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 강세 이동(stress shift)으로 설명 된다.

5) Jones, D.(1918), *op cit.*, pp. 232 - 244.

height [haɪt] < high [haɪ]
 house [haʊs] < now [naʊ]
 scarce [skɛəs] < scarce [skɛə]

이 현상은 그 환경이 단모음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음절핵에 단모음이 올 경우 그 뒤 자음이 유성인가, 무성인가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고 있다.

(12) bit [bɪt] < bid [bɪd]
 cup [kʌp] < cub [kʌb]

약간 특이한 것은 장모음이 음절핵에 위치할 때 뒤에 강세음절이 올 때는 길이가 길고 무강세음절이 오면 길이가 짧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이 그 사실을 뒷받침한다.

(13) leader [liːdɚ] seeing [siːɪŋ] < lead [liːd] see [siː]
 drawing [drɔːɪŋ] causes [kɔːzɪz] < draw [drɔː] cause [kɔːz]
 immunity [ɪˌmjuːnɪti] < immune [ɪˌmjuːn]

단모음 u, e, o 다음에 i 나 a 의 약모음이 따라와 장모음을 이룰 때 보통 단모음화 되어 발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u 음의 예가 이를 뒷받침한다.

(14) ruin [ruːn] -> [ruɪn]
 truer [truːə] -> [truə]
 player [pleɪə] -> [plea]
 poetry [poʊtri] -> [poetri]
 slower [slouə] -> [sloə]

한편 장모음이거나 이중모음의 길이는 강세음절에서 보다는 무강세음절에서 짧게 나타난다.

(15) ɔ:	audacious [ɔ:'deɪʃəs]	<	august ['ɔ:gəst]
a:	carnation [kɑ:'neɪʃn]	<	scarlet ['skɑ:lɪt]
ai	idea [aɪ'diə]	<	idle ['aɪdl]
ou	ovation [ou'veɪʃn]	<	over ['oʊvə]
ua	duration [djʊ'reɪʃn]	<	enduring [ɪndʒʊərɪŋ]

무강세 장모음이나 이중모음은 강세음절 뒤에 나올 때 짧아진다. 다음의 단어들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16) cardboard ['kɑ:dbɔ:d]	<	board ['bɔ:d]
fellow ['felou]	<	below [bi'lou]

이를 정리하면, 어떤 음절의 장모음이나 이중모음 뒤에 무강세가 오면 마지막 음절이나 또다른 강세 음절 뒤에 있는 모음보다 짧고, 특히 뒤에 무강세 음절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세음절은 짧다. 이것은 강세가 있는 음절을 등거리로 두고 싶어하는 리듬적 성향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Jones(1918)도 수집된 자료만을 설명하는데 치우쳤을 뿐 규칙으로 공식화시키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단어 강세는 인접한 분절음소들의 영향을 받고, 모음의 장단에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강세의 등급은 두개의 강세 즉, stressed(strong)와 unstressed(weak)로 나누면 충분하다고 한 사실들은 Liberman & Prince(1977)로 하여금 상대적 탁립관계를 생각케하는 기초가 되었다고 본다.

3. Gimson(1962)의 강세 이론

1) 액센트

Gimson(1962)은 두드러진 소리(prominence)를 구별하는 것을 발음의 핵심으로 보고, 액센트(accent)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⁶⁾ 이 말은 강세(stress)만으로는 두드러진 소리를 잘 느낄 수 없으므로, 강세외에 음질(quality), 음량(quantity), 음도(pitch)등의 요소들이 결합해야 정확한 발음연속체가 구성된다 는 것이다. 가령, examination의 경우는 /neɪ/, /zə /, /ɪg /, /mɪ /, /ʃn /의 강도순으로 발음한다.

그러나, 강세 혹은 소리의 크기(loudness)만으로는 액센트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다. Gimson(1962)은 import, insult, billow(below)의 경우 강 약의 차이만으로는 두드러진 소리를 그다지 느끼지 못하며 상승, 하강조의 음도(pitch prominence)의 변화에 따라 비로소 두드러진 소리의 우열이 명백해진다고 한다. examination에서의 accent는 • • ♩ • 이 되지만 the first examination was over 에서의 accent는 • • • • • ♩ • 로 변화된다.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음소들의 연결도 듣는 사람에게는 소리와 음절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소리(relative prominence)로 인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각의 음소에 똑같은 강세와 길이가 주어져도 일반적으로 모음은 자음보다 두드러지게 느껴진다. 물론 자음중에도 /m, n, g, l, r/등은 다른 자음보다 높은 음질을 가지며, 마찰음(fricatives)은 파열음(plosives)보다 역시 높은 음질을 보인다.

또 모음중에서는 개모음(open vowel)이 더 강한 액센트를 받는다. 이 사실은 영어의 가상의 음연속체인 [ɪvɪleɪ]를 강세, 음도, 길이의 구별없이 읽어 주면,

6) Gimson, A. C.(1975), *An Introduction to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Edward Arnold , pp. 222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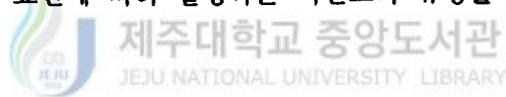
[v]와 [ʁ]가 가장 두드러진 소리로 들리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v]와 [ʁ]가 [i]나 [e]보다 개모음이기 때문에 더 두드러지게 들리는 것이다.

한편, [ɪlɪeə]를 소리낼 때에 강세나 음도에 변화를 주지 않고 [i:]처럼 소리를 내면 [i]모음은 음질로 보면 약하지만 다른 모음들 보다 두드러지게 발음된다. 이는 길이 즉 음량도 액센트의 결정요소임을 보여 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액센트의 결정요소로는 강세(stress), 음도(pitch), 음질(quality), 음량 및 길이(quantity or length)가 있다. Gimson(1962)에 의하면,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음량과 음질이며, 강세는 액센트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중 효과가 가장 적다.⁷⁾

이를 기반으로 Gimson(1962)은 액센트를 셋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 1액센트가 있는 음절은 강하고 길며 음도의 방향변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제 1액센트는 /●/로 표시하고 있다. 제 2액센트는 일반적으로 음도의 변화는 없으나 리듬 구성을 위한 액센트로 역할하거나 강도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꼬리가 달리지 않은 /●/로 나타낸다. 제 3액센트는 가장 약하게 발음되는 음절에 오게되며 가장 작은 점 /○/로 표시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액센트의 유형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7) 2 syllables

- ● unknown, Chinese, idea, antique, thirteen, cashier, chastise
- ● alone, machine, arrive, behind, invent, reform
- ● profile, placard, female, invoice, programme, window
- ● over, under, husband, valley, rhythm, cotton, table

7) Ibid. p. 226.

3 syllables

- • ㄹ understand, cigarette, magazine, entertain, personnel
seventeen, afternoon
- ㄹ • • quantity, yesterday, innocence, bachelor, wander
- ㄹ • • appetite, pedigree, photographer, cataract, telephone
- ㄹ • important, encounter, excessive, relation, eleven
- ㄹ • uncertain, re-entry, foreknowledge
- ㄹ • tobacco, tomato, embargo, prehensive

4 syllables

- ㄹ • • remarkable, impossible, affirmative, establishment,
photography
- ㄹ • • rhinoceros, unfortunate, diocesan
- ㄹ • • acetylene, acclimatize, enumerate
- • ㄹ • unimportant, insufficient, circulation, diplomatic
photographic
- ㄹ • • • cowardness, melancholy, caterpillar, criticism
- ㄹ • • • counterattack, capitalize
- ㄹ • • • telescoping, appetizing, educated, helicopter
- • • ㄹ aquamarine, photogravure
- • • ㄹ misrepresent, misunderstand

5 syllables

- • • ㄹ • affiliation, consideration, apothesis
- • • ㄹ • antimacassar, circumlocution, interdependence
- • ㄹ • • satisfactory, objectivity, aristocracy
- • ㄹ • • rehabilitate, inexactitude, incapacitate
- ㄹ • • • catholicism, administrative, empiricism

6 syllables

- • • 2 • • inferiority, impossibility, convertibility
- • • 2 • • characteristically, variability, meteorological
- • 2 • • • uncooperative, ceremoniously, indistinguishable
- • • • 2 • palatalization, nationalization, autobiographic
- • • • 2 • personification, identification, electrification

7 or 8 syllables

- • 2 • • • • unilateralism
- • • • 2 • • unreliability
- • • 2 • • • enthusiastically
- • • • • 2 • • industrialization
- • • • 2 • • impenetrability
- • • • • 2 • internationalization

2) 강세 유형의 가변성

앞에서 영어의 단어에는 엑센트가 주어지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같은 하나의 단어도 그것이 문장 속에 들어갈 때는 엑센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엑센트의 변화는 주로 리듬에 의한 요인(rhythmic pressure)과 유추에 의한 요인(analogical pressure)에서 비롯된다.⁸⁾

예를 들어 2음절 이상의 단어에서 만약 약음절에 /ə /나 /ɪ /가 있는 경우에는 리듬상 계속적으로 약음절이 오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강세가 변화된다. 다음 3음절의 단어들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다.⁹⁾

8) Ibid. 230.

9) * 표시는 더욱 받아들여지는 바른 유형이며, '는 primary accent를, ,는 secondary accent를 나타낸다.

(18)

exquisite	*/ ekskwizit /	/ ikskwizit /
deficit	*/ defisit /	/ difisit /
integral	*/ intigrəl /	/ intagrel /
mischievous	*/ mistʃivəs /	/ mistʃi:vəs /
inculcate	*/ igkalket /	/ igkalket /
acumen	*/ əkjumen /	/ əkju:men /
sonorous	*/ sɒnərəs /	/ sɑnɔ:rəs /
precedence	*/ presidns /	/ prɪsɪ:dns /

4음절을 가진 단어의 경우에도 강세의 변화를 가져오는 예가 있다. 예컨대 ●●●● 혹은 ●●●● 유형이 리듬적 이유로 해서 ●●●● 혹은 ●●●● 유형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

controversy	*/ kɒntrəvəsi /	/ kəntroʊvəsi /
hospitable	*/ hɒspitəbl /	/ həspitəbl /
despicable	*/ despɪkəbl /	/ dɪspɪkebl /
formidable	*/ fɔ:mɪdəbl /	/ fəʊmɪdəbl /
capitalist	*/ kəpɪtəlɪst /	/ kəpɪtəlɪst /
aristocrat	*/ ərɪstəkɹət /	/ ərɪstəkɹət /
centrifugal	*/ sentrifju:gl /	/ sentrifju:gl /
centripetal	*/ sentɹɪpɪtl /	/ sentɹɪpɪ:tl /
metallurgy	*/ mɪtələdʒ /	/ mɪtəlɔ:dʒ /

한편 단어의 강세 유형은 이러한 리듬적 요인이외에도 유추적 변화로 인해 유사 단어의 강세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applicable,

preferable, comparable 등의 강세형은 apply /əplai/, prefer /prɪfɛ:/, compare /kəmpeə/의 강세형의 유추로 인해 /əplɪkəbl, prefərəbl, kəmpeərəbl/ 대신에 /əplɪkəbl, prɪfɛ:rəbl, kəmpeərəbl/로 강세가 변화한다.

3) 변별적 어강세 유형

Gimson(1962)은 강세가 품사 즉, 명사나, 동사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변별적 강세라 부르고 있다. 이 경우 어떤 단어들은 음도(pitch) 혹은 강세 우위(stress prominence)의 변화로 인해 강세형이 대립되는 것이다. 이 때에도 음질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음질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단어의 예들은 음도의 상황에 의해 강세가 부여되는데 음도의 우위가 명사인 경우는 첫째 음절에, 동사의 경우는 둘째 음절에 주어진다.

(20) discount, import, impress, incense, increase, inlay, insult, offset, overhang

물론 화자에 따라서 동사의 변별적 강세는 주로 첫째 음절을 약화시키거나 애매한 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의 예가 이 사실을 보여준다.

	Noun / Adjective	Verb	
(21) abstract	/ əbstrækt /	/ əbstrækt /	/ əbstrækt /
accent	/ æksent /	/ æksent /	/ æksent /
digest	/ daɪdʒest /	/ daɪdʒest /	/ dɪdʒest /
torment	/ tɔ:mənt /	/ tɔ:mənt /	/ təmənt /
transfer	/ transfə /	/ transfə /	/ transfə /
transport	/ trænspɔ:t /	/ trænspɔ:t /	/ trænspɔ:t /

한편 Gimson(1962)은 강세형의 변화를 음질의 변화와 더불어 음도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여기서 음질의 변화는 동사의 첫째 음절을 /ə / 혹은 /ɪ /로 약화시킨다든가 간혹 때에 따라서는 형용사나 명사의 둘째 음절을 약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Noun / Adjective	Verb
(22) absent	/ əbsənt /	/ əbsent /
combine	/ kəmbaɪn /	/ kəmbain /
compress	/ kəmpres /	/ kəmpres /
concert	/ kənsət /	/ kənsart /
conduct	/ kəndəkt /	/ kəndəkt /
consort	/ kənsɔ:t /	/ kənsɔ:t /
contract	/ kəntɹəkt /	/ kəntɹəkt /
contrast	/ kəntəst /	/ kəntɹəst /
convict	/ kənvɪkt /	/ kənvɪkt /
desert	/ dezət /	/ dɪzərt /
export	/ ɛkspɔ:t /	/ ɪkspɔ:t /
frequent	/ frɪ:kwənt /	/ frɪkwənt /
object	/ ɒbdʒɪkt /	/ əbdʒekt /
perfect	/ pəfɪkt /	/ pəfekt /
permit	/ pəməɪt /	/ pəməɪt /
present	/ preznt /	/ prɪzənt /
proceeds	/ prəsi:sz /	/ prəsi:dz /
produce	/ prədʒu:s /	/ prədʒu:s /
progress	/ prɒgres /	/ prəgres /
project	/ prədʒekt /	/ prədʒekt /

protest	/ ˈprɒtɛst /	/ ˈprəʊtɛst /
revel	/ rɪˈbɛl /	/ rɪˈbɛl /
record	/ rɪˈkɔ:d /	/ rɪˈkɔ:d /
refuse	/ rɪˈfju:s /	/ rɪˈfju:z /
segment	/ ˈsɛɡmənt /	/ ˈsɛɡmənt /
subject	/ sʌbdʒɪkt /	/ sʌbdʒɛkt /
survey	/ sərˈveɪ /	/ sərˈveɪ /
August	/ ɔ:gəst /	/ ɔ:gəst /
minute	/ ˈmɪnɪt /	/ ˈmaɪnju:t /

지금까지 주로 2음절을 가진 단어의 강세형을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강세형을 결정하는데 음도, 강세, 음절등이 매우 큰 역할을 함을 이해할 수 있다. 2음절 이상을 포함하는 다음의 단어들의 강세형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Noun / Adjective	Verb
(23) alternate	/ ɔ:lternat /	/ ɔ:lterneɪt /
	/ ɔ:lternat /	
associate	/ əsoʃjət /	/ əsoʃjeɪt /
	/ əsoʃjət /	/ əsoʃjeɪt /
attribute	/ ətɪbju:t /	/ ətɪbju:t /
envelope	/ ɪnˈvɛləp /	/ ɪnˈvɛləp /
	/ ɪnˈvɛləp /	
reprimand	/ rɪˈpraɪmɑ:d /	/ rɪˈpraɪmɑ:nd /
interchange	/ ɪntətʃeɪndʒ /	/ ɪntətʃeɪndʒ /
compliment	/ kɒmplɪmənt /	/ kɒmplɪmənt /
		/ kɒmplɪmənt /

supplement	/ sʌplɪmənt /	/ sʌplɪmənt /
		/ sʌplɪmənt /
estimate	/ ɛstɪmət /	/ ɛstɪmeɪt /
intimate	/ ɪntɪmət /	/ ɪntɪmeɪt /
moderate	/ mɒdərət /	/ mɒdəreɪt /
prophecy	/ prɒfəsi /	/ prɒfɪsaɪ /
seperate	/ seprət /	/ sepreɪt /
invalid	/ ɪnvəlɪd /	
	/ ɪnvəlɪd /	

4. 강세 분석의 특징 및 문제점

이제까지 본장에서는 Jespersen(1909), Jones(1918), Gimson(1962)의 견해들을 정리해봄으로써 이들의 강세에 대한 직관이 어떠했는가를 파악했다. Jespersen(1909)은 강세 분석을 역사적 원리(historical principles)를 쫓아 해결하려 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역사적 원리라함은 언어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순리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간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그가 분류한 강세 유형에서 잘 나타나 있다.

평가강세, 조합강세, 리듬강세의 구분이 그것이다. 우선, 평가강세와 조합강세는 일종의 “중요성의 원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구(phrase)나 문장(sentence)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 강세를 받으며, 단어(word)에서도 단어의 어원이나 음소의 조합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부분에 강세를 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리듬강세는 발음의 편이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 발화에 강한 소리나 약한 소리가 각각 연속해서 오는 것을 꺼리고 이들이 교차해서 음운를 이루면 자연스럽게다는 것이다. 특히, 영어는 강세시간어(stress-timed language)이기 때문에 더욱 이 현상은 무시할 수 없다.

Jones(1918)는 강세를 강(strong)과 약(weak)의 관계로 설정하였다. 영어 단어 각각의 모음에는 강세가 배당되고 그 강세들간의 우위성(priority)이 정해지

지만, 현실적인 발음은 가장 강한 강세를 받는 음절에 강세가 주어지고 나머지는 약하게 되는 것이다.

Jespersen(1909)과 마찬가지로 Jones(1918)도 강세의 현상이 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출됨을 시사하고 있다. 가령, 강세 음절이 연이어 올 때는 하나의 강세 음절은 그 자질을 상실한다든가, 꼭 같은 음소에 의한 음가라 할지라도 유성음 앞의 음소가 무성음 앞의 음소보다 길게 발음되는 것등은 강세에 기인한 음운 현상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Gimson(1962)은 두드러진 소리(prominence)를 구별하는 것을 강세(stress), 음질(quality), 음량(quantity), 음도(pitch)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액센트로 보고 있다. 강세 이동(stress shift)에 대해서는 리듬에 의한 요인(rhythmic pressure)과 유추에 의한 요인(analogical pressure)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리듬에 의한 요인은 '강강' 혹은 '약약' 회피 현상과 다를 바가 없다. 유추에 의한 요인은 접사, 특히 접미사가 붙을 경우, 그 접사를 맨 어간이나 어근의 강세형에 맞추어 강세형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한편, 철자가 같으나 품사가 다른 단어에 다른 유형의 강세가 주어지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를 변별적 강세로 포착하고 있다.

전통음운론 및 구조주의 음운론의 특징으로는 첫째, 강세의 현상이 문법, 구문론, 음성학에 비해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강세는 이미 존재하는 사실일뿐이므로, 강세현상을 분류(classification)하는데 의존했기 때문이다. 둘째, 전통적인 강세분석은 강세를 음운적으로 파악하는데 실패하여, 이론이라할 만큼의 일반성이나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위 학자들의 강세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 이유는 강세현상이나 강세배당을 총체적 규칙으로 이끌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기술하기 때문이다. 넷째, 결국, 구조주의 음운론에서의 강세분석은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이것은 나름대로 이후의 언어학자들의 강세분석에 이론적 배경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Jespersen(1909)의 리듬강세에 대한 언급이나 Jones(1918)의 강약에 의한 강세분석, 그리고 Gimson(1962)의 강세변화(강세이동)에 대한 설명은 오늘날 음운음운론에서도 그대로 계승,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Ⅲ. 표준생성음운론에서의 강세 배당

1. 음운적 요인에 의한 강세부과

표준생성음운론(standard generative phonology)에서는 강세 할당을 음운적 요인(phonological factors)과 문법적 요인(grammatical factors)에 의해 부과하고 있다.¹⁰⁾

음운적 요인에 의한 강세 부과는 강세 자체가 음절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음절이라는 음운적 단위에 주목하여 음절의 구조에 따라 강세 부과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문법적 요인에 의한 강세 부과는 대표적으로 단어 경계(##)표지에 따라 위치가 결정되는 경우로서 문법적 기능의 변화뿐만 아니라 의미차이를 수반하는 것이다.

1) 변형순환의 원리

변형생성 언어학자(transformational - generative linguistics)들은 구조주의 언어학이 분절화(segmentation)와 분류(classification)에 치중함으로써 규칙의 체계성이나 단순성이 결여돼 왔다고 지적하면서 생성음운론(generative phonology)¹¹⁾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 가지 강세 유형에 대한 근본적인

10) Hyman, L. (1975), *Phonology : Theory and Analysis* , p. 205

11) 생성음운론이라 하면, 표준생성음운론(standard generative phonology), 자연생성음운론(natural generative phonology), 음절음운론(syllable phonology), 자립분절음운론(autosegmental phonology), 운율음운론(metrical phonology), 어휘음운론(lexical phonology)를 총칭하지만 여기서는 표준생성음운론에 한정해서 다룬다.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을 토대로 가능한 일관된 강세 규칙을 유도하려고 시도하였다.

Chomsky & Halle(1968)가 제시한 강세 규칙은 변형순환의 원리(principles of transformational cycle)를 이접적으로(disjunctively) 적용시키는 이론이 주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생성음운론의 핵을 이루고 있는 변형순환의 원리를 알아보고, Chomsky & Halle(1968)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는 강세 설명의 음운단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변형순환의 원리는 다음으로 요약된다.¹²⁾

- (24) (a) The rules of the phonological component are linearly ordered in a sequence R_1, \dots, R_n
- (b) Each rule applies to a maximal string containing no internal brackets.
- (c) After applying the rule R_n , we proceed to the rule R_n .
- (d) Unless an application of R_n intervenes, the rule R_j cannot be applied after the rule($j < i$) has applied.
- (e) R_n is the rule : erase innermost bracks.

위의 (a)는 음운부의 규칙들은 선형적 순서에 따라 규칙 R_1 이 적용된 후 규칙 R_2 가 적용됨을 의미한다. (b)는 각각의 규칙이 적용될 때 그 적용 범위는 가장 안쪽의 괄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c)는 가장 안쪽의 괄호에 해당하는 규칙들이 모두 적용된 후 다시 더 큰 괄호에 해당하는 규칙 R_1 규칙이 적용되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d)에서는 분석중인 대상어의 괄호가 지워지지 않는 경우에는

12) Chomsky, N. & Halle M.(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Harper & Row, Publishers, New York, p. 20.

다른 규칙이 개입할 수 없다. Rn 규칙이 말하는 바는 가장 안쪽의 괄호를 지우는 것이다.

즉, 강세 배당을 함에 있어서 가장 안쪽의 괄호에 해당되는 규칙을 적용하고 난 후, 그 괄호를 지우고 남은 괄호 중 가장 작은 괄호에 적용 가능한 규칙을 다시 배당하는 순서로 해서 마지막 괄호까지 없애는 순으로 강세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 blackboard와 black board의 강세가 어떻게 배당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두 형태의 강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의 네 가지 강세 규칙의 설정이 필요하다.

(25) (a) 어휘강세규칙(lexical stress rule): 주어진 어휘 항목에 대해 정확한 강세를 부여하는 규칙이다. 즉, 단음절을 가진 어음의 모음에 강세를 부여하는 규칙이다.

(b) 복합어강세규칙(compound stress rule : CSR): 복합어에서 제 1 강세를 가진 요소중, 가장 왼쪽의 것에 다시 제 1 강세를 부여하고 나머지 강세는 강세의 등급을 하나씩 낮추는 규칙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Stress] → [1 Stress] / _____ V _ _ _]NAV

(c) 중핵어강세규칙(nuclear stress rule : NSR): 구(phrase)안에 제 1 강세를 가진 단어가 둘 이상 있을 때 가장 오른 쪽에 있는 단어에 제 1 강세를 부여하고, 나머지 모든 강세는 한 단계씩 낮추는 규칙을 말한다.

V _ _ _ _____]NP

(d) 강세조정규칙(stress adjustment rule : SAR): 어떤 위치에 제 1 강세가 주어지면, 분석중인 연결체의 모든 강세들은 자동적으로 하나씩 내려가는 규칙이다.

위의 (26)과 (27)을 적용시켜 $blackboard$, $black\ board$ 의 강세형을 유도하는 과정을 살펴 보자. 우선 어휘강세규칙에 따라 각각의 모음에 강세가 배당된다. 그런 다음 가장 안쪽의 괄호가 지워지면 $[N\ black\ board]_N$ 로 된다. 복합어강세규칙에 의해 $[N\ black\ board]_N$ 처럼 왼쪽의 요소에 제 1강세가 부과되고 나머지는 한 등급씩 내려 간다. 마지막으로 강세조정규칙에 따라 $[N\ black\ board]_N$ 로 된 후 괄호가 지워지면 $blackboard$ 가 유도된다.

한편, $[NP[A\ black]_A [N\ board]_N]_{NP}$ 에 있어서도 어휘강세규칙에 따라 $[NP[A\ black]_A [N\ board]_N]_{NP}$ 처럼 강세가 배당된다. 규칙이 적용된 후 가장 안쪽의 괄호가 지워지면 $[NP\ black\ board]_{NP}$ 가 된다. 이제 중핵어강세규칙을 적용시켜 $[NP\ black\ board]_{NP}$ 이 된 다음 괄호를 지운다. 결과적으로 $black\ board$ 가 생성된다.



Chomsky & Halle(1968)는 강세배당을 설명하는 음운 단위로 음절로 보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 강음군(strong clusters)과 약음군(weak clusters)의 개념¹³⁾을 도입하고 있다. 물론 위에서 언급된 어휘강세규칙등에서 “monosyllable” 혹은 “syllable”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음운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분절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음절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¹⁴⁾

약음군(weak cluster)은 하나의 단모음과 그 뒤에 하나의 자음만이 오는 것이

13) Ibid. , p. 69.

14) 김종훈(1990), 음절음운론, 서울 : 한신문화사, pp. 30 - 31.

며¹⁵⁾ 강음군은 1)하나의 단모음과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경우, 2)장모음과 그 뒤에 자음이 오지 않는 경우, 3)많은 수의 자음이 오는 경우이다. 다음의 예에서 강음군과 약음군이 어떻게 구분되며 이에 따른 강세배당을 보자.

(26)	I	II	III
erase		Er ¹ As	S S
irate		Ir ¹ At	S S
mutation		MUt ^v Asən	S S W
ecumenical		eK ³ U ¹ menikał	W S W W W
cupidity		kU ¹ pidi ^t E	S W W S
citation		sIt ^v Asən	S S W
maintain		mAnt ¹ An	S S
collapse		kəl ¹ əps	W S

위의 예에서 column I에 대한 발음이 II이며 이를 토대로한 강음군과 약음군의 표시가 III이다. column II에서 모음중 대문자로 표시된 부분이 강음군이며, 그 이외의 것들은 약음군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강음군에는 강세가 있고 약음군에는 강세가 없다. 강음군에 강세를 배당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29)에 따라 강세할당이 이루어진다.

한편, Chomsky and Halle(1968)는 강세 위치 설정에 있어서 복잡한 규칙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 때 규칙의 적용순서는 무조건적인 적용이 아니라 이접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27) V \rightarrow [\text{1 Stress}] / X \text{ _ } C_0(W) / \text{ _ } (\{ + \text{affix} \})]^{16)}$$

15) SPE p. 83에서는 이를 $[-\text{stress}]_V^1$ 에서 $[-\text{stress}]_V^1$ 로 확장시켜 표기하고 있다.

16) Ibid. , p. 35.

위의 (27)에서 W는 약음군(weak cluster)이며 C₀는 자음이 없거나 혹은 하나 이상(zero or more consonants)이며 Σ'는 강세 받은 음절(a stressed syllable) 즉 C₀ V C₀의 음절을 말하며, X는 중간에 # boundary를 포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위의 규칙은 순서없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규칙을 먼저 적용해 보고 그 규칙의 적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다음의 규칙을 적용하는 순으로 진행한다. 또 한번 적용한 규칙은 재차 적용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위의 규칙은 다음의 규칙들이 이접적으로(disjunctively) 적용되는 것을 축약한 형태이다.

- (28) (a) $V \rightarrow [1 \text{ Stress }] / X \text{ ____ } C_0 W + \text{affix}]$
 (b) $V \rightarrow [1 \text{ Stress }] / X \text{ ____ } C_0 + \text{affix}]$
 (c) $V \rightarrow [1 \text{ Stress }] / X \text{ ____ } C_0 W \Sigma']$
 (d) $V \rightarrow [1 \text{ Stress }] / X \text{ ____ } C_0 \Sigma]$
 (e) $V \rightarrow [1 \text{ Stress }] / X \text{ ____ } C_0 W]$
 (f) $V \rightarrow [1 \text{ Stress }] / X \text{ ____ } C_0]$

위의 (a), (b)는 접사규칙(affix rule)으로 단어에 접사가 붙는 경우 그 접사는 주장세규칙(primary stress rule)에서 제외시킨다. 가령, personal, anecdotal, dialectal인 경우 각각의 -al은 강세분석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강세 부과는 personal, anecdotal, dialectal처럼 된다. (c), (d)에서 말하는 것은 강세음절이동규칙(stressed syllable rule)이다. 이미 강세를 할당 받은 단어가 품사를 달리할 때는 그 할당 받은 제 1강세를 왼쪽으로 옮기는 규칙이다. 이는 torment에서 드러난다. torment가 동사일때는 주장세 규칙에 의해 tormént처럼 어말음군에 강세가 배당되는데, 명사일 경우는 제 1강세가 어말들 제음군으로 이동한다. 결과적으로 tórment가 된다.

위의 (a), (b), (e), (f)는 이접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이들중 하나가 적용

되면 나머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c)가 적용되면 (d)가 적용될 수 없으며, (c)나 (d)중 하나가 적용되면 (e)와 (f)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용 가능한 규칙들의 연결체는 다음처럼 된다.

- (29) (a), (c)
- (a), (d)
- (b), (c)
- (b), (d)

결국, 이접적 순서(disjunct ordering)의 적용에 의하면 소괄호 부분을 포함하는 규칙이 적용되면 그 규칙을 제외한 규칙은 적용치 않으며, 전자가 적용되면 후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 (28)에서 강세 규칙은 주장세규칙, 강세음절이동규칙, 접사규칙으로 나뉘어 설정되고 있다. 주장세규칙에서 어말이 강음군이면 그 음군에 강세가 부과되고, 약음군이면 어말들째음군의 강음군의 모음에 강세가 부과된다. 또 강세를 부과받은 음절일지라도 품사가 동사에서 명사나 형용사로 전환할 때 강세는 왼쪽의 음군에 배당된다. 이것은 강세음절이동규칙이다. 접사규칙이라 함은 강세 할당의 고려는 어간이나 어근을 대상으로 하며 접미사는 고려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2. 문법적 요인에 의한 강세 부과

강세위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여하는 가장 명백한 문법요인은 단어경계(word boundary, ##)이다. 가령, 어떤 언어에서는 첫째 음절에 강세를 부과하고, 또 어떤 언어에서는 어말들째음절에 강세가 부과되는 것은 문법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불어의 경우는 각 단위(sense group)의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부과된다. (예, de la *márie* from the town-hall', la Tour *Éiffel* the eiffel tower') 여기에서 각각의 단어의 어말음절에 강세가 부과되면 * *lá* tour *Eíffél* 과 같은 틀린 강세형이 유도된다. 그러므로 불어에서 단어는 강세위치를 결정하는 범주가 아니다.

영어의 경우 강세와 관련을 맺을 수 있는 것으로는 접미사가 있다. 그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은 + abl이다. 어떤 접사도 붙지 아니하면 [-long]의 자질을 가진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Halle(1973)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¹⁷⁾ 왜냐하면, 그의 주장세 규칙(primary stress rule)에 의하면 어말들째 음군(penult)이 약음(weak)이 아닌 경우 그 음군에 강세가 부과되고, 약음인 경우는 어말셋째음군(antepenult)에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corrigible'은 penult가 약음이므로 어말셋째음군에 강세가 주어지고, 'refragible'은 penult가 강음이므로 어말들째음군에 강세가 주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다음과 같은 교체강세유형(alternate stress pattern)의 경우에 해당한다.¹⁸⁾

(30) a		b	
	<i>in</i> éxplicable		inexplicable
	<i>h</i> ospitable		hospitable
	<i>é</i> xplicable		explicable
	<i>d</i> éspicable		despicable
	<i>f</i> ormidable		formidable

17) Halle, M. (1973 c), " Stress Rules in English : A New Version" ,
Linguistic Inquiry, vol.4, no.4, fall.

18) Aronoff, M. (1982),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 p. 122.

(30 a)는 Halle(1973)의 가정에 적합하지만 (30 b)는 penult가 약음이므로 어말셋제음군에 강세가 주어지는데 (b)는 같은 어형으로 penult가 약음인데도 어말셋제음군으로 강세가 옮겨가지 않는다. (30 b)에서 강세가 유도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접사를 2음절(disyllable)로 분석하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31) a	b
comparable	compáritable
réparable	réparable
réfutable	refutable
préférable	préférable
dísputable	disputable

위의 (a)를 X + able의 형태로, (b)를 X # able의 형태로 해석하면 교체강세 규칙이 설명된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강세유형에 따라 의미차이가 생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1 a, b)의 한 예로 'comparable(X + abl)'의 의미차이를 살펴보면, 'compáritable'은 'capable of being compard'의 의미로, 'comparable'은 그 의미 외에 첨가적으로 'equivalent'의 의미로 쓰임을 알 수 있다.¹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법적 요인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단어 경계 설정의 문제에 해당된다. 즉, 접사가 붙는 어형의 경우에 똑 같은 주장세 규칙을 적용하더라도 어형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강세위치가 달라지게 된다.

교체강세규칙의 경우에는 접사를 2음절어 (bisyllable)로 분석하는 방법과 어근(stem)과 접사 사이에 어근 경계표시를 두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적격한 강세

19) Ibid. , p. 127.

유형을 얻게 된다. 또한 의미차이를 가져오는 교체 강세유형의 경우에는 문법적인 구조가 다른 것으로 보고 $X + \text{suffix}$ 와 $X \# \text{suffix}$ 의 형태로 분석하여 해결한다.

3. 강세 분석의 특징 및 문제점

생성음운론이 생겨난 배경은 전통 및 구조주의 음운론이 체계적 규칙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과 음운 현상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input)과 결과(output)의 부재에 힘입은 바 크다. Chomsky & Halle(1968)로 대표되는 표준생성음운론은 음운론의 여러 분야중에서도 강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즉, 영어의 소리 패턴(sound pattern)은 강세가 많이 좌우한다는 견해이다. 이들에 의하면 강세형은 기저형(underlying form)에서의 주어진 심리적인 형이 필요한 음운 규칙(phonological rules)에 따라 최종적인 표면형(surface form)에 이르러 현실적인 형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Chomsky & Halle(1968)가 집대성한 *The Sound Pattern of English*(이하 SPE라 줄임)의 강세 분석은 기저형과 표면형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강세를 규칙화하는데에는 체계성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며 가능한 예외 규칙을 허용치 않는 일반성이 요구되기도 하는데 SPE는 이를 위해 변형순환의 원리를 사용한 것이다. 이 원리의 내용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규칙의 적용은 가장 안쪽의 괄호부터 시작하여 가장 밖의 괄호가 지워질 때까지 변형하면서 순환적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규칙의 적용 방법은 아무렇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접적 순서(disjunctive ordering)에 의해 적용된다.

강세 현상에 규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규칙을 일관성 있게 제시할 음운 단위가 필요한데, SPE에서의 중심이 되는 단위는 음군(clusters)이다. 음군은 강음군(strong clusters)과 약음군(weak clusters)으로 분류되는데, 약음군은 하나의 단모음과 그 뒤에 하나의 자음만이 오는 경우이며, 강음군은 하나의 단모음과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경우, 장모음과 그 뒤에 자음이 오지 않는 경

우. 많은 수의 자음이 오는 경우이다. Chomsky & Halle(1968)에 의하면, 어말 둘째음군(penult)이 약음이 아닌 경우 그 음군에 강세가 부과되고, 약음인 경우는 어말셋째음군(antepenult)에 강세가 부과된다. 가령, 'corrigible'은 어말둘째음군이 약음이므로 어말셋째음군에 강세가 배당되고, 'refragible'은 어말둘째음군이 강음이므로 여기에 강세가 배당된다.

그러나, 강세 배당을 강음군과 약음군으로 분류하여 적용하는 SPE의 강세 설명 방법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이를테면 강세 배당을 설명하는 음운 단위인 분절음(segment)에 한계가 드러난다. 분절음이라함은 각각의 음소(phonemes)에 바탕을 둔 단위이다. 강세 분석에 분절음을 사용하기때문에 변별적 자질(distinctive features)로써, 분절음 개개의 음가가 실현되어 다원적(n-ary)으로 파악된다. 이 음운 단위는 강세 이동(stress shift)이나 실제 발음되는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뿐만아니라, 규칙의 체계성을 강조하다 보니 복잡함이 노출되고 일반성의 원리에 맞춰 예외의 규칙을 줄이려는 과정에서 복잡성이 가중된다. 이를테면, SPE에서 강음군과 약음군의 구분은 강세 분석의 핵심인데, 약음군의 구조가 $[\overset{- \text{stress}}{\underset{v}{}}]_C'$ 에서 $[\overset{- \text{stress}}{\underset{v}{}}]_C' [\overset{\alpha \text{ voc}}{\underset{- \text{ant}}{\text{cons}}}]$ 로 바뀌는 것은 약음군의 부류에 r이나 l을 추가시키려는 의도에서 규칙의 일반성을 의식한 것이었으나, 이는 오히려 임시변통으로 개념을 팽창, 변조하는등의 비일반성을 생성하고 있다.

음군에 의한 강세 분석의 또 하나의 결함은 교체강세규칙(alternate stress rule)을 만들게 한다. 예를들어 comparable, comparable처럼 둘 다 같은 음군이면서도 강세 유형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음군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따라서 이를 위해 만들어 낸 것이 교체강세규칙이다. 전자를 X + able로, 후자를 X # able로 해석하여 강세를 결정짓도록 하자는 것이다.

SPE는 강세분석의 기원이라 할 정도로, 비로소 여기에서부터 강세분석이 원리나 이론으로서 존재했다. Chomsky and Halle(1968)는 이미 존재하는 강세현상을 규칙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강세분석의 적용은 순환적으로 이접적 순서에 의

해 이루어진다. 즉 기저형(underlying form)에 있던 강세는 변형순환의 원리를 이접적 순서로 반복적 적용으로써 표면형으로 적용된다.

이같은 표준생성음운론의 강세분석의 특징은 첫째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강세현상에 논리성이 부여되어 규칙을 체계화시켰다는 것이다. 둘째는 강세분석에 강음군(strong cluster)과 약음군(weak cluster)의 개념을 도입하며, 변별적 자질에 입각한 분절음(segment)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셋째로, 강세에 번호 매김을 함으로써 각각의 음군에 대해서 강세의 순위를 정했다는 것이다. 강세를 다원적으로 분석했다.

SPE의 강세분석이 경이스러울 정도의 규칙의 체계성을 과시했으나 한편으로는 개선해야할 단점들도 없지 않았다. 그 중 하나는 강세분석의 음운 단위로 분절음을 사용했기 때문에 분절음 각각에 대한 강세분석은 가능하나 실제 음가에 대한 분석은 불가능했다. 둘째로, 강세의 정도를 다원적으로 보아서, 겉으로는 규칙성이 철저한 듯 보이지만 이는 현실을 무시한 분석으로서 강악에 의존하는 운율음운론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셋째로, Chomsky and Halle(1968)의 강세분석은 선형적 분석이었다. 이 분석은 분석대상어가 단순할 때에는 어느 정도 간결성을 해치지 않지만, 그 대상어가 길어질 때에는 오히려 복잡성을 가져와 규칙이 추구해야할 간결성(simplicity)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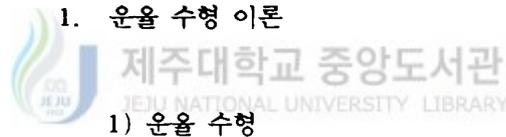
결국 SPE(1968)는 강세를 분석할 때 이전과는 달리 규칙의 적용 가능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강세를 양분 자질을 지닌 수형상에서 보지 못하고 다원자질을 지닌 비계층적 구조로 본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다.

20) 김순택 (1991), "영어 운율범주의 계층적 조직",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IV. 운율음운론에서의 강세 배당

표준생성음운론은 변형순환의 원리에 따라 강세를 다원적 자질로 간주하고 주어진 단어의 모음에 할당하는 분절음적 접근을 시도한 바 있다. 강세는 초분절 현상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분절음에 기반을 두어 음운규칙의 적용을 통해 강세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강세는 이와 다른 접근 방법으로 즉, 강과 약의 상대적 개념에 의해 계층적으로 표시할 때 더 큰 일반화와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강세를 설명하면서 운율의 이론을 도입한 Liberman & Prince(1977)--이하 LP로 약함, 음보(stress foot)를 도입하여 LP(1977)를 보완한 Selkirk(1980), 엄밀순환조건(strict cycle condition)을 제시한 Kiparsky (1982), 운모투사법(rhyme projection)과 운율여분성(extrametricality)의 원리를 영어에 적용시켜 새로운 ESR을 제시한 Hayes(1982)의 견해를 살펴볼 것이다.

1. 운율 수형 이론



1) 운율 수형

LP²¹⁾는 강세를 다원적(n-ary)이 아니라 양분적(binary)으로 본다. blackboard가 단독으로는 1 2 강세형이 문장 속에서는 2 5 강세형으로 되는 것은 강세의 국부적(local) 의미를 부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다.

LP에서는 강세를 구성성분 속에서의 상대적 자질(relative feature)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 1강세와 상대적이지 않은 독립적 제 2강세 혹은 제 3강세

21) Hogg, M. & C.B. McCully(1987), *Metrical Phonolog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 28.

란 있을 수 없고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세는 구성성분 속에서 서로 상대적으로만 매겨짐으로써 규칙의 반복 적용은 필요없게 되고 강세종속규약(stress subordination convention)²²⁾도 불필요하게 된다.

또한 S/W의 이분지의 수형구조(tree structure)로만 그 자매마디(sister nodes)간에 국한적 음운 효과를 가지는 강약을 상대적으로 매겨 나간다면 복합어강세규칙(compound stress rule)의 여러 변항들이 필요없게 되어 규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그 규칙 환경이 다른 변항들로부터 멀리 떨어질 염려도 없게 되고, 규칙을 이접적으로 적용시킬 필요도 없어진다.

결국 강세는 이분지 수형 구성성분의 상대적 독립관계(relative prominence)로 이해되어야 하며 선형 연결로서가 아니라 음보에 근거한 계층 구조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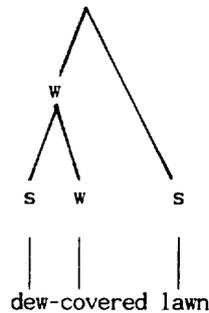
운율 음운론의 가장 기초 원리는 상대적 독립관계이다. 즉, 강세는 강(s)과 약(w)으로 표시되는 계층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LP(1977)는 처음엔 복합어나 구(phrase)에서부터 이러한 독립관계의 타당성을 제시한 바 있다. 다음의 수형을 보기로 하자.



22) Stress Subordination Convention : When primary stress is placed in a certain position, then all their stresses in the string under consideration at that point are automatically weakened by one.
이것은 Chomsky & Halle(1968)에서는 강세조정규칙(stress adjustment rule)에 해당한다.

여기서 s와 w의 표시는 아무런 물리 해석도 없는 말하자면 일정한 음성 해석이 없는 표시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그것은 교점 상호간의 관련성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s라는 교점이 w라는 교점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강하거나 우세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s의 의미를 영어로 표현하면 “stronger than” 또는 “dominant”가 되며 w는 “weaker than” 또는 “dependent”가 된다.²³⁾ 그래서 단독의 s나 단독의 w는 의미가 없으며 [s s]형이나 [w w]형도 음운론적으로 의미가 없다. 이번에는 다음의 수형을 주목하자.

(33)



위 수형은 dew가 covered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며, 그것이 구가 되어 dew-covered lawn이 되었을 때는 dew-covered보다 lawn이 중심요소이기 때문에 lawn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경우에도 covered와 lawn과의 탁립관계는 자매 구성요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형성되는 수형도에 적용하는 NSR과 CSR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규정할 수 있다.²⁴⁾

23) 김종훈 (1990), *op. cit.*, p. 110.

24) LP (1977), “On Stress and Linguistic Rhythm”, *Linguistic Inquiry*, vol. 8, no. 2, Spring, p.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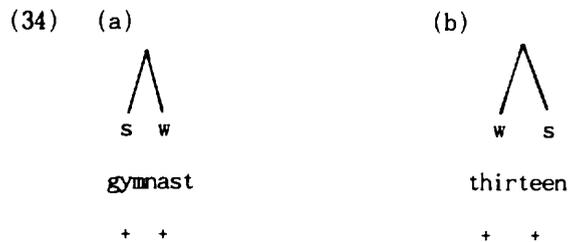
In a configuration [cA Bc] :

- a. NSR : If C is a phrasal category , B is strong.
- b. CSR : If C is a lexical category , B is strong if it branches.

이러한 탁립 관계에 의한 강세 설명의 장점은 강세를 다른 운율 자질처럼 다분법이 아닌 양분법에 의해 설명할 수 있고, 강세의 등급 표시를 하는데 있어 순환 규칙이 불필요하여 순환 규칙에서 중요시되는 변수(variables)나 이접순서(disjunctive ordering)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적인 강세의 강약을 음운(phonological segment)자질이 아닌 성분구조(constituent structure)의 자질로 규정하므로, 자연적인 조음형태 (articulatory)라든가 분절음보다는 큰 단위에 의해 강세가 유도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강세 음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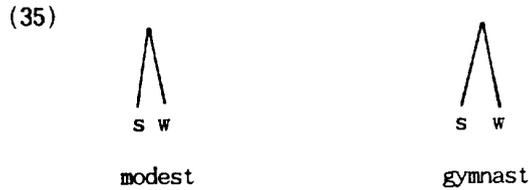
LP(1977)는 단어를 [\pm stress]의 관계로 보았는데 영어의 모든 단어를 [\pm stress]의 탁립관계로 설명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있는 바, 이것은 상위계층의 음운 단위를 요구한다. 가령,



위 수형 (a), (b)의 경우 양음절 모두 [+ stress]이지만 탁립 관계로는 s/w 혹은 w/s로 나타내게 되어 모순이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Selkirk(1980)는

음보의 개념을 도입하였다.²⁵⁾

modest와 gymnast의 경우를 보자. 두 단어 모두 첫째 음절에 주강세가 있다. LP에 의하면 다음에서 보듯이 첫째 음절이 s이고 이어지는 음절이 결과적으로



w이다. 그러나, 두 단어의 강세 패턴은 다르다. modest의 둘째 음절은 무강세 (unstressed)이며 gymnast의 둘째 음절은 제 2강세이다. 이런 차이 (예, dormant /dormant, mastot / musket, convict / verdict)를 구별짓기 위해서 LP는



처럼 [± stress]의 자질을 살리면서, 탁립관계(prominence)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음보의 개념을 도입한 Selkirk(1980)의 수형은 다음과 같다.²⁶⁾

25) Selkirk, E.O. (1980), " The Role of Prosodic Categories in English Word Stress", *Linguistic Inquiry* , vol. 11, pp. 563 - 605.

26) *Ibid.*, pp. 564 - 5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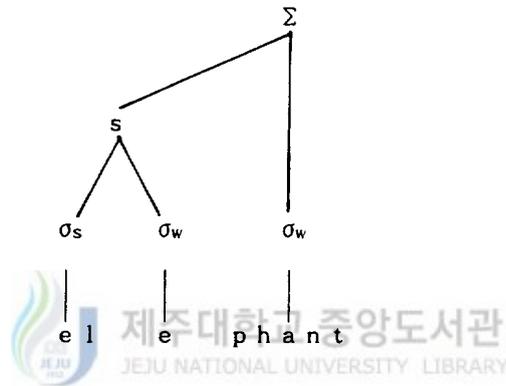
도록 한다. 유음절(stray syllable)은 유음절 접속(stray syllable adjunction) 조건에 따라 인접 음보에 붙여 준다. LP²⁷⁾에 의하면

(39) stray syllable adjunction (SSA) :

Any syllable unaccounted for by the ESR and its concomitant tree-building is to be adjoined as a weak sister to the nearest maximal left foot, respecting word boundaries.

이때 음보는 가능한 한 s /w (혹은 w / s)구조를 유지하도록 한다.

(40)



한편 강음보 앞에 나타나는 단일 음절의 약음보 (약음절이거나 romance어 접두어)는 탈음보 (defooting or destressing)하여 뒤 강음보에 붙여준다. 이 탈음보는 SPE에서 언급된 destressing²⁸⁾을 운율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다. 탈음보에 대한 접근은 학자들마다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개념은 차이가 없다. Hogg and McCully(1987)²⁹⁾는 탈음보가 발생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27) LP (1977), *op. cit.*, p. 294.

28) Chomsky, N. & M. Halle (1968), *op. cit.*, p. 125. (Rule 118 a,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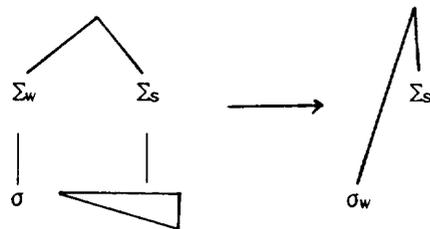
29) Hogg, M. & C. B. McCully (1987), *op. cit.*, p. 83.

서술하고 있다.

- (41) A weak foot containing only one syllable, which must be either light or [+Ro], loses its foot status when it is immediately followed by another foot.

이는 경음절이거나 로망스어 접두어가 하나의 음절로만 이루어지고 게다가 약음보의 경우 바로 뒤에 강음보가 뒤따라 올 때 그 약음보는 음보의 자질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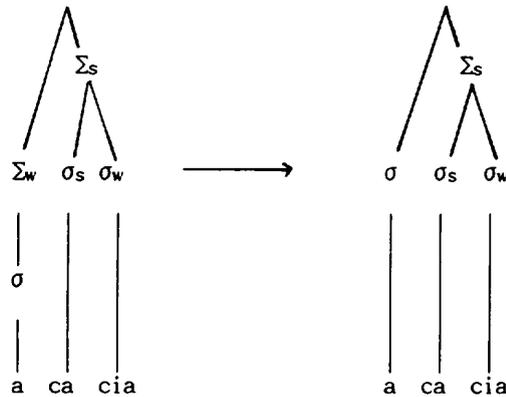
- (42) defooting(foot-ba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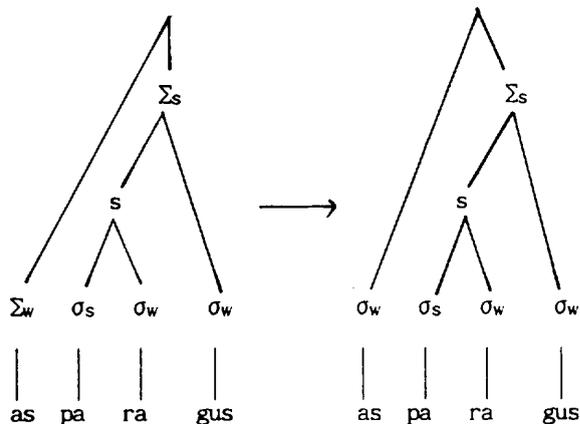
Conditions : σ is either light or [+Ro]

영어 단어 acacia, asparagus를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3) (a)



(b)



이 때 탈음보를 시킴에 있어서 두 개의 가정이 필요하다.³⁰⁾ 하나는 탈음보는 운율 수형의 제공 후에만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탈음보 될 음절을 따르는 음절은 [+stress]이면서 운율적으로 강일 때이다.

한편 음보들끼리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어휘범주타입규칙(lexical category prominence rule : LCPR)에 따라 단어의 수형을 만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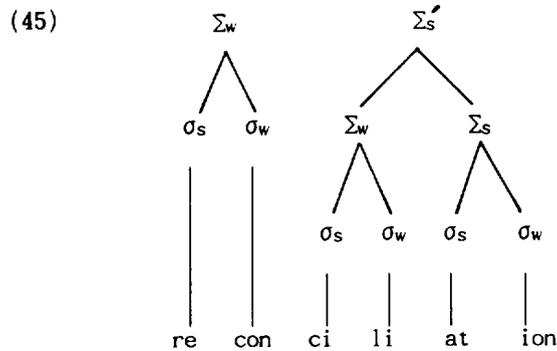
(44) lexical category prominence rule (LCPR) :

For any pair of sister nodes $[N_1, N_2]$ where L is a lexical category and N_1, N_2 are feet or dominate feet, then N_2 is strong iff on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is met.

- A. N_2 branches.
- B. N_2 is [+F]
- C. L is [\sim n] (non-nomical) and N_1 does not branch
- D. L is a Verb and N_2 directly dominates the stem

30) *Ibid.*, p. 81.

위 규칙에 따라 reconciliation의 음보간의 강약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조건 A는 (45)에서 cili보다 ation이 더 강함을 포착하고 조건 B는 -ade, -ane, -ee, -esque, -ette, -ique 등의 그 자체에 강세를 갖는 접미사들 같은 경우 어휘 목록에 [+F]로 표시하여 해결하려는 조건이다. 조건 C는 [~n]이라도 [N 1]이 분지하면 앞 음보가 더 강함을 포착하고 있으며, 조건 D는 앞 음보가 분지하더라도 뒤 음보가 어간인 복합 동사에서는 그 어간이 더 강함을 포착하는 조건이다. 나아가 이 규칙은 다음절어인 경우도 단일 Mot(M)로 보고 M도 일종의 음보를 지배하는 마디(dominate foot)로 보아 모든 어휘 범주어의 강세 현상을 설명하려는 규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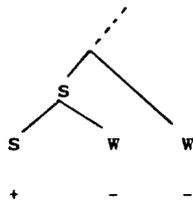
3) 순환성

LP(1987)가 Chomsky & Halle(1968)의 강세배당원리를 비판한 것 중의 하나가 표준생성음운론의 순환성으로 인한 규칙의 복잡성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LP(1987)는 음운 규칙과 순환성을 분리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단어에 접사가 붙을 때 그 접사는 강세규칙의 배당에서 배제한

다. 그러면 운율이론에 의한 강세 분석에서 왜 순환의 과정이 필요한지 살펴보기로 하자. LP(1987)는 다음 4단계의 운율 구조를 제시한다.³¹⁾

(46) (a) [\pm stress]를 할당한다.

(b) 음보를 할당한다.



(c) 남아 있는 마디(nodes)를 연결시킨다.

(d) 분지되면 오른쪽에 S를 배당한다.

위의 (46 a-d)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내포하고 있다.

(47) (a) [\pm stress]의 할당은 순환적이다.

(b) 규칙이 [\pm stress]를 할당할 때마다 그 할당하에 있는 음절들은 (48 a-d)에 의해 운율적으로 조직된다.

(c) (48 c)에 의해서 괄호를 묶는 것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행해진다.

(d) 순환에 있는 규칙이 적용되기 전에 그 순환하에 있는 모든 운율 구조는 지워진다. (deforesation) : [\pm stress]의 표시는 유지된다.

위에서 LP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deforesation이다. 즉 LP에 의하면 다음 순환으로 넘어갈 때 전 순환영역에서 만들어진 모든 운율 구조를 제거(deforesation)시킨 뒤 +, -만 이어받아 새로운 운율 수형을 만들어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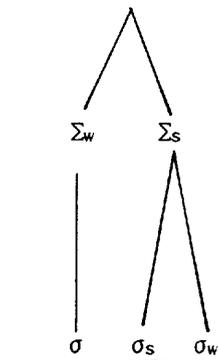
31) LP (1977), *op. cit.*, pp.298 -304.

(48) deforesation³²⁾

Before applying any rules on a cycle, erase all prosodic structure in the domain of that cy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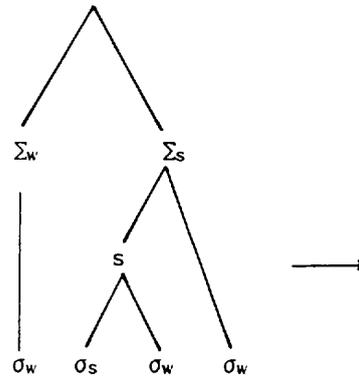
이 규칙에 의해서 sensation, sensational, sensationality에서의 강세위치 변화과정을 수형으로 그려 보자.

(49)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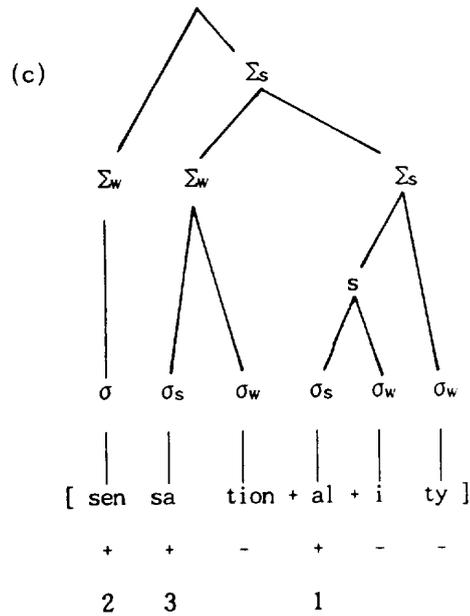
[[[sen sa | tion] + al] + ity]
+ + -

(b)



[[[sen | sa | tion + al] + ity]
+ + - -

32) *ibid.*, p. 301.



(49 a)에서는 ESR에 의해서 두 개의 음보가 발생했으며, 각 음보마다 head가 있다. N 가 분지(branched)되기 때문에 LCPR에 의해서 강음보로 된 것이다. (49 b)에서 우선은 deforesation에 의해서 위에서 언급된 정보는 모두 지워진다. 다시 ESR을 적용시키면 (49 a)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음보가 생긴다. (49 c)에서도 deforesation에 의해서 앞 과정에서 언급된 의도는 사라지며 다시 ESR을 반복적으로 적용시킨다. 결과적으로 1, 2, 4음절이 head가 된다.

그러나, 이 수형 구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순을 낳고 있다. 첫째는 형태음운론적(morphological)으로 모순이며, 둘째는 음운론적(phonological)으로 모순이다. 위의 수형도에 의하면 [sensation]이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sational], [sationality]로 되어 형태 구조가 무시되고 있다. 또한 sen에 제 2강세가 매겨지고 있다. 이것은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 사이의 상대적 탁립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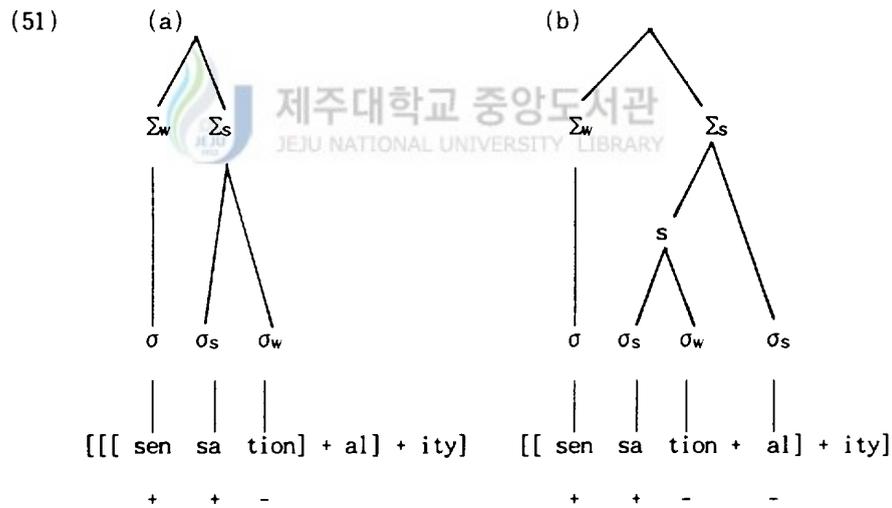
이에 대해 Kiparsky(1982)는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50) strict cycle condition (SCC)³³⁾

(a) Cycle rules apply only to derived represen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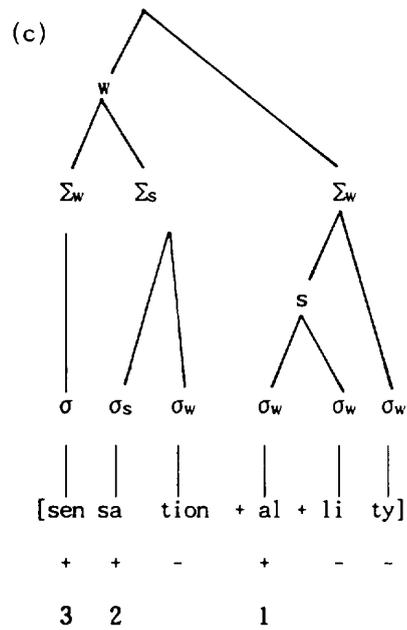
(b) Definition : A representation is derived with respect to rule R in cycle j iff meets the structural analysis of R by virtue of a combination of morphonemes introduced in cycle j or the application of a phonological rule in cycle j.

즉 앞 순환에서 만들어진 운율 구조는 가능한 한 그대로 보유하면서, 새로이 형태소가 도입됨으로써 어떤 규칙의 환경에 부합될 때에만 거기에 순환적으로 규칙을 적용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SCC가 음보 이론에 합쳐지면 이제 ESR은, 어떤 음보에다 음보의 중심 요소적(head) 자질을 부여해 주는 규칙이 될 뿐이다. Kiparsky(1982)의 설명에 의한 위의 sensation, sensational, sensationality의 수형은 다음과 같이 된다.



33) Kiparsky, P.(1982), " Metrical Structure Assignment is Cyclic".

Linguistic Inquiry , vol. 13, p.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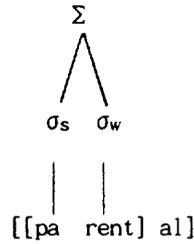
제 2순환에서 -al이 도입되더라도 새로이 ESR환경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ESR은 공전하고, SSA에 의해 -al은 앞 음절에 붙여진다. 제 3순환에서는 제 1순환에서 만들어진 sensation의 운율 구조는 그대로 보유되면서, 새로 도입된 -ality가 ESR의 환경에 부합되게 되어 -al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음보가 만들어진다. 이제 sensationality에서 [sensation]이 운율적 단일체이고 sa에 제 2강세가 배당됨을 정확하게 포착하게 된다.

이처럼 제 2강세가 첫째 음절에 있지 않고 둘째 음절에 있는 단어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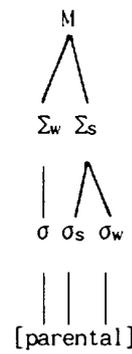
- (52) iconoclastic, anticipation, totalitarian, egalitarian,
 theatricality, superiority, inferiority, posteriority

이런 사실에 입각해서 parent, parental의 강세 배당과정을 보자.

(53) (a)



(b)



제 1순환에서 만들어진 parent 음보의 중심요소로서의 자격으로 제 2순환에서 pa-는 그대로 음보로 보존되면서 -al이 새로 도입된다. 그래서 -rental이 새로 이 ESR환경에 부합되게 되므로, -ren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음보가 만들어지고, LCPR의 조건 (a) 에 따라 -ren음절에 제 2강세가 오게 되며, pa-는 탈강세되어 그 발음이 [a]로 된다.

4) 운율여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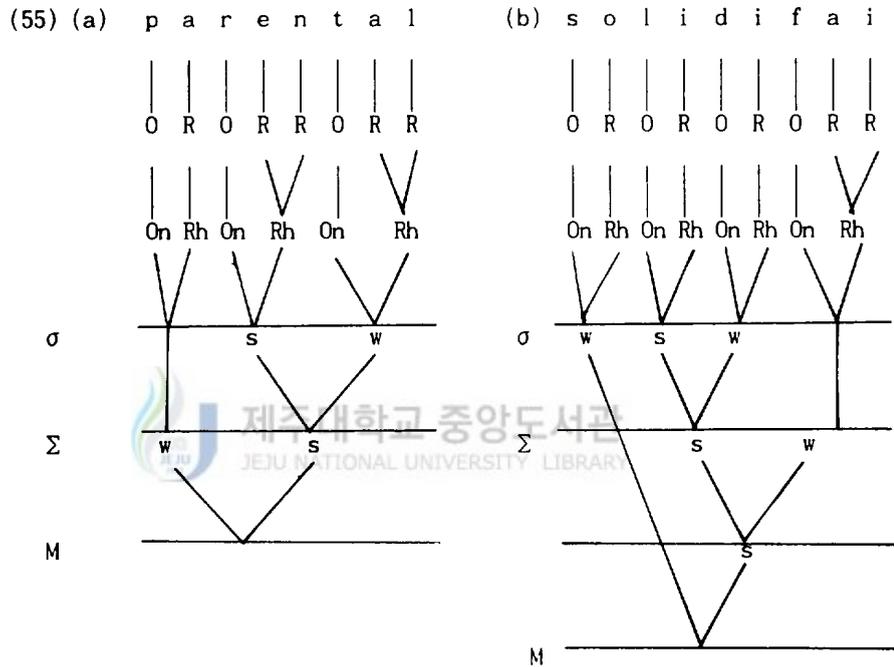
영어 단어의 동사와 접미사가 없는 형용사에 있어서, 어말이 장모음(54 a)이거나 둘 이상의 자음(54 b)으로 끝나면 어말음절에 강세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54 c) 어말들깨음절에 강세가 배당된다.³⁴⁾

(54)	(a)	(b)	(c)
	obéy	torment	astónish
	atóne	usúrp	devélop
	divíne	robóst	
	discréet	ovért	illicít

34) Chomsky, N. & M. Halle (1968), *op. cit.*, p. 70.

이렇듯 ESR은 기본적으로 생성음운론에 의존한 바 크다. 이에 대해 Hayes (1982)는 운모 투사법(rhyme projection)과 운율 여분성(extrametricity)의 이론을 영어에 적용시켜, 수형만에 의한 음보 형식 원칙으로서의 새로운 ESR을 도입한다.³⁵⁾

운율 여분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앞에서 사용했던 가지치기 방법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설명된다. parental, solidify, sensibility를 예로하여 살펴 본다.



35) Hayes, B. (1982), "Extrametricity and English Stress",
Linguistic Inquiry, vol. 13., pp.227 - 276.

어말 음절이 이중모음, 장모음, 음절후부(coda)에서의 자음인 경우는 강세가 배당되고, 즉 어말 모음이 a bracketing rhyme일 때만 강세가 부여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말들째음절에 강세가 배당된다. 즉, 강세 배당은 rhyme projection일 때에만 작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ESR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57) English Stress Rule, foot-based (final version)³⁶⁾

Proceeding from right to left from the edge of the domain
and on the rhyme projection only :

- (i) Assign the rightmost syllable foot status if it branches.
- (ii) Assign every second syllable (counting from the rightmost foot or the edge of the domain if there is no rightmost foot) foot status.
- (iii) Assign the leftmost syllable foot status.

Hayes(1982)는 강세 배당에 운율에 입각한 ESR을 제시한 것 이외에, 접사(affix)가 붙은 단어에 있어서는 이 ESR 적용 이후에 stress retraction rule의 적용을 주장했다. 여기에서는 그 적용대상어들이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예가 드물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2. 운율격자 이론

1) LP(1977)와 Prince(1983)의 이론

LP(1977)는 운율수형이론을 보완하기 위한 운율격자이론(metrical grid

36) Hogg, M. & C.B. McCully (1987), *op. cit.*, pp.113 - 114.

theory)을 개발하였다. LP(1977)가 운율격자이론을 주장하는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³⁷⁾

첫째 이유는, 격자이론은 리듬규칙(rhythm rule)의 형성에 필수적이거나 이 리듬규칙은 thirteen men (thirteen men)같은 구에서 강세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칙이다. 둘째 이유는 격자이론에 의해서 화자는 복잡한 재조정규칙 없이도 수형 혹은 SPE의 숫자표기보다 정확하게 음절의 독립관계에 대해 언어직관(intuition)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격자가 구성되는 과정은 다음의 (58)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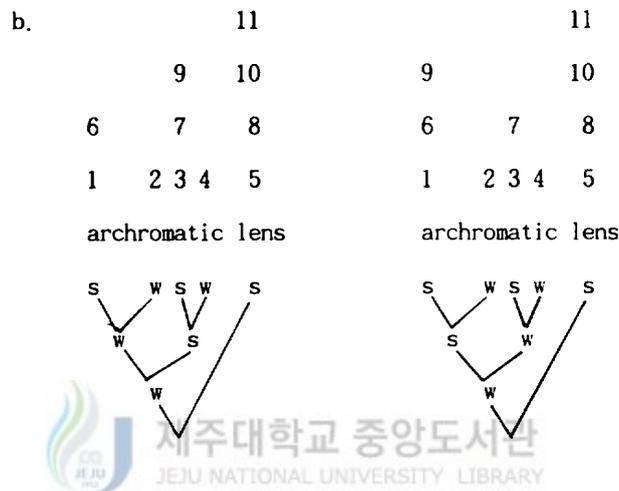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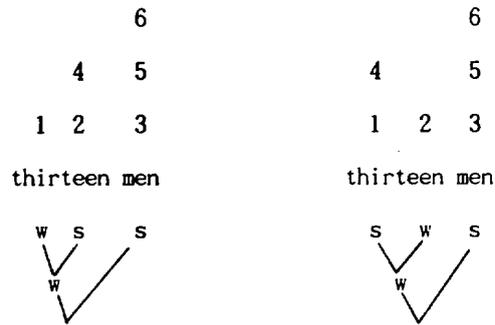
(58) grid construction

- a. As a place marker, assign each syllables of a mark on the first level of the grid
- b. Assign every lexical (i.e. content word) monosyllable a mark on the second level
- c. Assign sufficient additional marks so that the strongest syllable of every strong metrical constituent has more marks than the strongest syllable of its weak sister.

위 (a)는 격자의 첫 단계에서는 위치표시로서 각각의 음절에 강세를 할당한다는 뜻이다. (b)는 둘째 단계에서는 내용어를 지닌 단일 음절에 강세를 할당하는 의미이다. (c)는 강한 운율을 가진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강한 음절은 가장 많은 격자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과정에 따라 격자가 구성되는 예를 살펴보자.

37) LP (1977), *op. cit.*, p. 311.

(59) a.



위에서 보듯이 단어나 구 또는 문장의 리듬구조가 격자³⁸⁾에 의해 가시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화자의 직관에 맞게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세이동을 유발시키는 동기가 강세충돌(stress clash)이라고 보고 강세충돌에 대한 정의를 내릴수 있는 것은 바로 격자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고 LP는 주장하고 있다.

LP에 의하면, 운율수형과 운율격자가 별도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운율수형은 강세관계를 나타내기엔 적합하며 운율격자는 리듬구조를 나타내기엔 적합하다는

38) LP의 처음 표시는 숫자 표시였는데, 후에 x로 격자를 표시했다.

격자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율동적 리듬규칙(rules of eurhythmy)에 의한다. 이 율동적 리듬규칙이란 모든 계층, 즉 음절계층(L₁), 음보계통(L₂), 단어(L₃), 구(L₄)에서 격자표시의 동등한 거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이 규칙은 격자의 어떤 층에서는 격자표시의 특별한 거리를 요구하기도 한다.⁴¹⁾

(64)	a.	x	b.	x
		x-----x		x-----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Mississippi Mabel		Mississippi Mabel

위에서 4음절 간격인 (64 b)가 2음절 간격인 (64 a)보다 선호된다. 강세간의 간격이 4음절을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은 다음의 예에서도 알 수 있다.

(65)	a.	Tennessè abbrevátiõs	Tennessee abbrevátiõs
		Tennessè legislátiõs	Tennessee legislátiõs
		Tennessè connéctiõs	Tennessee connéctiõs
		Tennessè relátives	Tennessee relátives
	b.	Mississìppi legislátiõs	Mississippi legislátiõs
		Mississìppi connéctiõs	Mississippi connéctiõs
		Mississìppi relátives	Mississippi relátives

그래서 율동적 리듬규칙의 하나로 4음절 간격규칙을 만들 수 있다.

41) Hayes, B. (1984), *op. cit.*, p. 45.

(66) quadrasyllabic rule

A grid is eurhythmic when it contains a row whose marks are spaces close to four syllable apart

한편 올동적 리듬규칙의 둘째로 2음절 간격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67) disyllabic rule

The domains delimited on the level of scansion should be divided evenly by a mark on the next lower grid level

위의 규칙은 일단 4음절규칙에 의해서 강세간의 거리가 결정된 후, 그 바로 밑층의 음절간의 간격도 양쪽에서 2음절간의 간격을 중심으로 반듯하게 구분하는 규칙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68) a.

x

x---x

x x x x x

a hundred thirteen men

b.

x

x-----x

x x x x x

a hundred thirteen men

c.

x

x x x x x

x-----x-----x

x x x x x

a hundred thirteen men

위에서 4음절규칙에 의해서 (68 b)가 된다. 그러나, (68 b)는 thirteen에서 발생하는 '내부' 리듬('internal' rhythm)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래서 결국 2음절규칙에 의해서 (68 c)가 된다.

다음의 예에 대한 원칙도 제시된다.

- (69) a.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² ³ ³ ¹
 b. Topics in the Theory of Generative Grammar
 ² ³ ¹
 c. when we were disagreeing about Stacy and Eric
 ² ³ ³ ¹
 d. I think you're not being entirely honest.
 ² ³ ³ ¹

(70) phrasal rule

A grid is more eurhythmic if its second highest level bears two marks, spaced as far apart as possible

요약하면, 울동적 리듬규칙의 내용은 4음절을 중심으로 격자표시를 한다. 그 다음 낮은 계층에 다시 2음절로 강세 간격을 둔다. 더 높은 계층에 바로 직전의 박동(beat)을 다시 부여한다. 첫째가 4음절간격규칙, 둘째가 2음절간격규칙, 셋째가 구규칙이다.

울동적 리듬규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째, 격자의 한층은 운율분석(scansion)의 층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⁴²⁾ 예를 들면 다음(71 a), (71 b) (71 c)에서 운율분석의 계층은 둘째, 셋째, 넷째 층에서 일어난다.

42) *Ibid.* , pp. 53 - 54.

(71) a. x
x
x-----x
x x x x x
Manitowoc Falls

b. x
x-----x
x x x
x x x x x
Mississippi mud

c. x
x-----x
x x x
x x x x
x x x x x
ten - cucumber lunch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리듬규칙(rhythm rule)과 박동추가(beat addition)는 울동적 리듬이 증가할 때 여러곳에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령, twenty-seven Mississippi legislators는 리듬조정규칙의 적용되기 전에는 리듬적 특성이 없어 보인다.

(72) x
x-----*x----- *x Q R, P R
x x-----x-----x x x D R
x x x x x x x x x x
twenty - seven Mississippi legislators

특히 *표시는 간격이 너무 가까워서 4음절규칙을 형성하기에는 어렵고, 2음절규칙도 반 정도만 만족되며, 구규칙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두개의 리듬

규칙과 하나의 박동 추가⁴³⁾는 모든 규칙을 충족시킨다.

(73)

x	
x-----x	P R
x-----x-----x	Q R
x-----x-----x-----x-----x	D R
x x x x x x x x x x x x	
twenty - seven Mississippi legislators	

다음의 예에서는 세번의 리듬규칙에 의해서 하나의 구가 울동적 리듬이 된다.

(74) a.

x	
*x-----*x	P R
x-----*x-----*x	Q R
x x-----x---x x	D R
x x x x x x x x x x x	
Mississippi - Alabama rivalries	

b.

x	
x-----x	P R
x-----x-----x	Q R
x-----x-----x---x-----x	D R
x x x x x x x x x x x	
Mississippi - Alabama rivalries	

43) *Ibid.*, p. 56.

3) Selkirk(1984)의 이론

격자만으로 운율 구조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Prince(1983), Hayes(1983)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Selkirk(1984)는 강세충돌 이외에 약세연속(lapse)이론을 추가하여 리듬구조를 보다 일반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였고 silent demibeat addition(SDA)라는 통사적 경계(syntactic boundary)의 정보를 이용하여 리듬규칙의 적용가능성을 공식화하였다.⁴⁴⁾ Selkirk가 제시한 등위별 격자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⁴⁵⁾

(75)		x		
		x	x	beat
	x	x	x	basic beat
	x	x x x	x	demibeat
	arcromatic	lens		

(75)와 같은 격자가 구성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 (76) text-to-grid alignment (TTGA)
- a. demibeat alignment
 - b. basic beat rule
 - c. domain-end prominence rule
 - d. pitch accent rule

44) Selkirk, E.O. (1984), *Phonology and Syntax*, The Mit Press.

45) Selkirk, E.O. (1980 p.565)에서는 격자의 계층구조를 밑에서부터 음절충위 (syllable), 음보충위(stress foot), 단어충위(prosodic word)로 설명한다.

위의 규칙을 말하자면 a는 모든 음절에, b는 강세 음절에, c는 단어, 복합어 구강세에, d는 초점이나 대조를 위해 격자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기본원리에 의해 격자가 구성되면 격자 두개가 인접할 수도 있고 약세도 세개이상 연속할 수 없다는 엄격한 교체의 원리가 수반된다.

(77) principle of rhythmic alternation(PRA)

- a. Every strong position on a metrical level n should be followed by at least one weak position on that level.
- b. Any weak position on a metrical level n may be preceded by at most one weak position on that level.

(a)에서 n이라는 운율층에 강이 있으면 그 층에는 적어도 하나의 약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b)는 n이라는 층에 약이 있으면 그 층에는 기껏해야 하나의 약을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구성된 격자가 이상적인 리듬형이 아닐때는 다음의 grid euphony rule에 의해 리듬구조가 변화한다.



(78) grid euphony rules(GER)

- a. beat addition
- b. beat movement(rhythm rule)
- c. beat deletion

위의 GER은 TGA가 만든 구조를 grid-euphony에 입각하여 리듬구조의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를 제시한 것이다.

- (82) silent demibeat addition(SDA)⁴⁶⁾
- a. optionally, place a demibeat at the end of a word
 - b. place a demibeat at the end of a branching constituent
 - c. place a demibeat at the end of a daughter of the sentence node

(82)의 규칙에 의해 silent demibeat가 부과된 뒤에 demibeat가 세 개이상 연속되면 리듬교체의 원리(principle of rhythmic alternation)가 적용된다.

- (83) a.
- | | | | | | | |
|--------|--------|--------|---------|--------|--------|--------|
| x | | x | | x | | x |
| x | x | x | x | x | x | x |
| x | x | x | → SDA → | x | x | x |
| x | x | x | → BM → | x | x | x |
| x | x | x | → | x | x(x) | x |
| x | x | x | → | x | x(x) | x |
| Marcel | proust | Marcel | proust | Marcel | proust | proust |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b.
- | | | | | | | |
|--------|--------|--------|---------|--------|--------|--------|
| x | | x | | x | | x |
| x | x | x | x | x | x | x |
| x | x | x | → SDA → | x | x | x |
| x | x | x | → BA → | x | x | x |
| x | x | x | → | x | x(x)xx | x |
| x | x | x | → | x | x(x)xx | x |
| Marcel | proved | Marcel | proved | Marcel | proved | proved |

Selkirk(1984)는 강제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데에도 beat movement가 적용되는 근거는 다음에서 찾고 있다. (예, telegraphic communication, phonological

46) Selkirk, E.O.(1984), *op. cit.*, p. 150.

V. 결 론

지금까지 영어 강세에 대한 이론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Jespersen (1909)에서 시작되어 Gimson(1962)에 이르기까지 전통 음운론자들의 견해는 강세 현상에 대한 사실의 기술과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이후의 강세 분석에 이론적 배경을 제시해 주었다. 특히 이들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했지만 강세에 있어서의 리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운율 이론을 주창한 Liberman & Prince (1977)에 동기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강세 현상에 대해서 체계성이나 규칙성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심오한 이론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전통 음운론, 구조주의 음운론의 뒤를 이은 것이 생성 음운론이다. 이는 기존의 음운이론을 깨트리고 강세 현상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서, 수십년 동안 수정을 거듭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SPE(1968)로 대표되는 표준생성음운론은 복잡하고 난해해 보이는 강세 현상을 규칙성으로 도출하여 이를 체계화시켰다. 강세는 변형 순환의 원리를 이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Chomsky & Halle(1968)는 주강세 규칙, 교체강세규칙, 파생접사규칙을 동사, 명사, 형용사등으로 구분하여 규칙의 일반화를 꾀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그 특징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표준생성음운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음운 단위는 분절음(segment)과 음군(cluster)으로서 영어 강세분석의 획기적인 기원을 이루기는 했으나 근본 의도와는 달리 표기규약등 여전히 복잡성의 문제는 존재하고 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강세는 이분지 수형 구성성분의 상대적 탁립관계(relative prominence)로 이해되어야 하며, 선형연결로서가 아니라 음보에 근거한 계층 구조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강세를 강약의 양분법에 의해 설명할 수 있고 강세의 등급 표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순환 규칙이 불필요하며 규칙에서 사용되는 변수(variables)나 이접순서(disjunctive ordering)의 개념

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또한 상대적인 강세의 강약을 음운(phonological segment)자질이 아닌 성분구조(constituent)의 자질로 규정하므로 분절음이나 음절보다는 큰 패턴에 의해 음성화시키는 이점을 얻게 된다.

한편, *thirteén* 과 *mén*을 결합하면 *thirteen mén*으로 강세가 이동한다. 이런 현상은 일찌기 Jespersen(1909), Jones(1918)에 의해서도 언급된 바가 있는데 Prince(1983)와 Hayes(1984)에 있어서는 이 현상을 강세 충돌(stress clash)과 울동적 리듬(eurhythmy)의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전통 및 구조주의 음운론에서는 이를 존재하는 사실로 받아들일 뿐 체계적인 규칙으로 나타내려 하지 않았고, 표준생성음운론에서는 음운단위가 분절음이기 때문에 낮은층의 단위로서는 이런 강세이동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간주된다. 뿐만 아니라 숫자에 의한 강세 표시와 이에 따른 복잡한 재조정 규칙으로 해서 강세 현상이 인간의 언어현상과는 떨어진 인위적인 현상으로 비쳐진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운율 음운론의 격자분석으로써, 강세 이동을 간결하고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들 각각의 음운 단위에 의한 강세 설명은 서로 상호 관련성이 있다. 강세 이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은 시대와 학자를 막론하고 비슷하며, 단지 그 접근 방법인 음운 단위에 있어서 상이함을 보이고 있다. 음운 단위의 유형은 크게 표준생성음운론의 분절음과 운율음운론의 음보가 있다.

전자는 분절음 개개의 분석에는 유용하나 실제 여러개의 음절들이 관여하는 강세를 설명하기에는 음운 단위가 작고, 낮은 층이다. 특히 이 때의 강세 현상은 강음군과 약음군의 구별이었는데, 여기에 일반성이 결여돼 있으며 순환 규칙과 재조정 규칙등으로 해서 복잡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후자는 분절음이나 음절보다 큰 상위층의 단위인 음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성의 원리에 적합하며, 수형이나 격자에 의한 강세 분석을 함으로써 강세 현상이 언어 직관에 의해 파악할 수 있어서 보다 우월한 이론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참 고 문 헌

- 김순택 (1991), 「 영어운율법주의 계층적 조직」,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훈 (1990), 「 음절 음운론 」, 서울 : 한신문화사.
- Aronoff, M. (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 The
MIT press. (2nd edition, 1981).
- Chomsky, N. & M. Halle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 Harper & Row.
- Gimson, A.S. (1975), *An Introduction to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London : Edward Arnold.
- Halle, M. (1973), " Stress Rules in English", *Linguistic Inquiry*,
vol. 14.
- Halle, M. and S.J. Keyser (1972), *English Stress : Its Form, Its Growth,
Its Role in Verse*, London : Harper & Row.
- Hayes, B. (1982), " Extrametricality and English Stress",
Linguistic Inquiry, vol. 13, no. 2, spring.
- (1983), " A Grid-Based Theory of English Meter",
Linguistic Inquiry, vol.13, no. 3, summer.
- (1984), " The Phonology of Rhythm in English",
Linguistic Inquiry, vol. 15, no. 1, winter.
- Hogg, R. & C.B. McCulley (1983), *Metrical Phonology : a course book*,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yman, L. (1975), *Phonology : Theory and Analysi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Jackendoff, R. and F. Lerdahl (1981), "On the Theory of Grouping and
Meter", *Musical Quarterly*, vol. 67.
- Jespersen, O. (1909),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Part 1, Allen & Unwin. (2nd edition, 1970).
- Jones, D. (1918),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Cambridge :
W. Heffer & Sons Ltd. (9th edition, 1960).
- Kahn, D. (1976), *Syllable-Based Generalizations in English Phonology*,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 Kiparsky, P. (1979), " Metrical Structure Assignment is Cyclic"
Linguistic Inquiry, vol. 10, no. 3, summer.
- Liberman, M. & A. Prince (1977), " On Stress and Linguistic Rhythm",
Linguistic Inquiry, vol. 8. no. 3, summer.
- Prince, A.S. (1983), " Relating to the Grid ", *Linguistic Inquiry*
vol. 14, no. 1, winter.
- Selkirk E.O. (1980), " The Role of Prosodic Categories in English Word
Stress", *Linguistic Inquiry*, vol. 11, no. 3, summer.
- (1984), *Phonology and Syntax*, Cambridge : The MIT Press.

<Abstract>

A Study of Stress Placement in English

Oh, Kyeong-Seok

English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oon-Taik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review the development of the stress theories in English and to show that stress plays an important role in phonology. The fact that the rules on stress or stress placement have been improved proves that they pursue "generality" and "simplicity" continuously. Phonology contains many theories. This thesis is focuses on traditional or structural phonology, standard generative phonology and metrical phonology.

Traditional or structural approaches gave the metrical background to stress analysis. Those approaches didn't provide the systematic rules that could have explained stress placement, however. In addition, standard generative theory manages to provide them, but often do not capture the generalizations or explain the complexities of rules.

Stress should be understood by means of relative prominence. And the stress placement also has to be analyzed with the help of a hierachycal structure based on stress foot, not on linear structure based on segment. It is requird that an analysis of stress follow one of metrical phonology.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June, 1992.

In conclusion, the phonological units of stress placement are largely segment and stress foot. The former lacks generality and simplicity. On the contrary, The latter satisfies them. The analysis by stress foot deserves to be estimated as the more predominant theory.

